

보도시점 2023. 3.29.(수), 행사종료시(별도문자 공지예정) 배포 2023. 3.29.(수)

## 7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

정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춰주기 위하여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대파·무)·축산물(닭고기)·수산물(명태)의 가격이 다소 안정되어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감자(감자칩 제조용), 냉동꽂치(갈치조업 미끼용), 종오리 종란(오리 사육)의 공급이 확대되어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농·어가 등의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할당·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5월부터는 계획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품목별 지원내용

	품목	지원방식	현행세율	변경세율	지원기간 / 물량	지원효과(억원)
물가안정 (4개)	닭고기	할당 증량(+3만톤)	20~30	0	~6.30 / 3만톤	172
	대파	할당관세 신규적용	27	0	~6.30 / 5천톤	12
	무	할당관세 신규적용	30	0	~6.30 <sup>1)</sup>	2 <sup>2)</sup>
	명태	조정관세 제외	22	10	~6.30 <sup>1)</sup>	54 <sup>2)</sup>
농어가 등 지원(3개)	칩 제조용 감자	할당관세 신규적용	30	0	~11.30 / 1.3만톤	38
	냉동꽂치	조정관세 제외	24	10	~12.31 <sup>1)</sup>	29 <sup>2)</sup>
	종오리 종란	할당관세 신규적용	12	0	~6.30 / 10톤	1

\* 주1) 지원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에 대해 적용, 주2) '22년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추정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박경찬 (044-215-4430)
	산업관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tkkim21@korea.kr)
	경제정책국	책임자	팀 장	장윤희 (044-215-2931)
	농축수산물 물가대응팀	담당자	사무관	이인중 (peter246810@korea.kr)

최근까지 닭고기·대파·명태 등 일부 먹거리의 수급불안과 가격강제\*가 이어지며 서민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칩 제조용 감자·갈치잡이 미끼용 냉동꽂치 등의 가격 상승으로 농·어가 생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23.2월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닭고기)16.4 (파)29.7 (명태)10.6 (감자)9.5

먹거리 물가 안정과 관련된 품목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세율이 20~30% 수준인 닭고기는 생산비 상승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2월 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16.4% 상승하는 등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6월말까지 수입 물량 중 최대 3만톤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세율이 27%인 대파는 겨울 한파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2월 물가가 전년동월보다 29.7%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5천톤 범위 안에서 6월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의 경우에는 지난 1월 제주지역의 한파로 올해 3~6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약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최근 수입무의 가격도 평년보다 40% 가량 높아 가격안정을 시급히 도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6월말까지 수입되는 무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30%가 아닌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2%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명태는 소비량이 많은 겨울 동안 재고가 감소하면서 소매 가격이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었기에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22%의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대신 1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물가안정 품목	'22년			'23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닭고기	8.8	10.2	24.2	18.5	16.4
대파	24.0	9.9	13.8	22.8	29.7
무	118.1	36.5	7.1	8.0	13.8
명태	11.7	11.4	11.5	12.3	10.6

한편, 농어가 등 생산지원과 관련된 지원내용을 보면, 감자의 경우 저장물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공급량 확대와 가공식품 가격안정 등을 위해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말까지 최대 1.3만톤까지 30%인 기본세율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갈치조업 미끼로 널리 사용되는 냉동꽂치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갈치조업 어민의 경영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 냉동꽂치에 적용되는 24%의 조정관세 대신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해 10%의 기본세율을 연말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AI 확산으로 사육 기반에 큰 피해를 입은 오리 사육 농가의 조기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오리 소비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6월 말까지 수입되는 종오리 종란(부화용 오리 수정란) 10톤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율을 12%에서 0%로 낮추었습니다.